

민법(친족상속법 제외)<선택>

2015년 시행 5급(행정) 공채 제2차시험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20년 전에 건축된 X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甲은 X주택을 乙에게 임대하면서 X주택의 하자는 수리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일단 乙이 이사를 하였고, 그 후 甲은 수리업자 丙과 X주택의 수리계약을 체결하였다. 丙은 X주택 수리를 위한 작업을 하던 중, 난방배관의 누수부분에 대한 용접을 그가 고용한 아르바이트생 丁에게 맡겼다. 그런데 丁이 용접을 하던 중 부주의로 용접 불꽃이 乙의 가재 도구에 튀어서 X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화재로 乙의 가재도구가 전소되고 X주택의 일부가 멸실되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20점)

- 1) 乙이 甲에게 주장할 수 있는 계약법상의 법리를 논하시오. (8점)
- 2) 乙이 丙과 丁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과 丙과 丁 사이의 책임관계를 논하시오. (12점)

제 2 문. 甲은 2015. 1. 16. 자기 소유의 X노트북을 乙에게 빌려주었다. 2015. 2. 16. 甲은 증여의 의사 없이 X노트북을 乙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2015. 3. 16. 乙은 용돈이 필요하여 증여받은 X노트북을 丙에게 매각하였다. 다만, 乙은 丙의 양해를 얻어 X노트북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丙은 X노트북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15점)

제 3 문.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부동산 X와 Y의 처분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우선 乙은 위 부동산 중 X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그 후 甲은 마음이 바뀌었으니, 부동산 Y는 처분하지 말라고 乙에게 이야기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丙이 부동산 Y를 고가로 매수하려 하자, 丙과 부동산 Y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丙은 乙에게 부동산 Y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총 15점)

- 1) 丙은 甲에게 부동산 Y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8점)
- 2) 丙은 乙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7점)

인사혁신처 시험출제과장

